

# 시선 강탈

# 특별 출연

# 팬데믹에 목혀둔 영화 드디어 '빛'



# 반가울까

# 반감될까

### '그녀가 죽었다'·'원더랜드' 등 극장가 살아나며 잇달아 개봉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쉽사리 개봉 시기를 정하지 못했던 영화들이 잇따라 관객을 찾는다. 제작 단계부터 관객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오랜 시간을 묵히는 바람에 이른바 '참고 영화'로도 불리게 된 작품들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포문을 여는 영화는 다음달 개봉하는 김세휘 감독의 스릴러 영화 '그녀가 죽었다'다.

출처보기가 쥐미인 공인중개사 정태(변요한 분)가 자신이 관찰하던 인플루언서 소라(신혜선)를 죽였다는 누명을 벗기 위해 벌이는 분투를 그렸다. 드라마와 영화를 중형무진하는 변요한과 신혜선이 주연으로 나서 영화 팬들의 주목을 받았으나, 2021년 상반기 촬영을 마치고 3년이 흐른 뒤에야 관객에게 선보이게 됐다.

비슷한 시기 크랭크업한 김태용 감독의 '원더랜드'는 오는 6월 극장에 걸린다.

김 감독이 '만추' (2011) 이후 13년 만에 내놓는 신작인 이 영화는 세상을 떠난 가족을 영상통화로 다시 만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다.

박보검, 수지, 최우식, 정유미, 탕웨이, 공유 등 화려한 출연진을 내세워 이목을 끌었다.

두 작품이 수년간 개봉일을 잡지 못한 이유는 2020년 2월 코로나19 발생을 기점으로 극장과 한국 영화계가 최악의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수백원대의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마저도 고배를 마시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엔데믹 이후인 지난 해마저도 한국 영화 관객 수는 팬데믹 이전 평균 연간 관객 수의 절반가량에 머물렀다.

그러다 올해 1분기(1~3월)에는 매출액과 관객 수가 각각 팬데믹 이전의 77.5%, 66.0%까지 회복됐다. 개봉 시점을 고심하던 작품들로서는 기대 해를 만한 상황인 셈이다.

하지만 제작을 끝내고도 몇 년을 묵힌 영화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녀가 죽었다' 포스터

대표적인 사례가 임상수 감독의 '행복의 나라로'다. 시간이 없는 탈옥수 203(최민식)과 돈이 없는 환자 남식(박해일)이 우연히 거액의 돈을 얻고, 인생의 화려한 마무리를 꿈꾸며 동행하는 이야기를 그린 로드무비다.

이 밖에도 김윤석·배두나 주연의 '바이러스' (강이관 감독), 이병헌·유아인 주연의 스포츠 드라마 '승부' (김형주), 류승룡·하지원 주연의 가족 누아르 '비광' (이지원), 박도원 주연의 '소방관' (곽경택) 등 굵직한 상업영화 수십편이 몇 년째 구체적인 개봉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다.

영화계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작품의 울드한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개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지욱 영화평론가는 "현대극의 경우, 크랭크업 1년만 지나도 살짝 뒤떨어졌다는 것을 관객들은 눈치챈다"며 "의상이나 소품만 봐도 이미 유행이 끝난 것들이고, 영화 속 메시지도 다 지나간 얘기가 돼버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데뷔 50주년' 김연자, 다음달 특집 방송

가수 김연자(사진)가 다음 달 25일 KBS 2TV 특집 프로그램 'KBS프리미어 김연자 더글로리'에 출연한다고 소속사 초이크리에이티브랩이 13일 밝혔다.

김연자는 1974년 15세에 '말해줘요'로 데뷔해 1987년 일본에 진출, '원조 한류스타'로 활약했다.

그는 지난 반세기 동안 '아침의 나라에서', '수은동', '천하장사', '10분 내로', '진정인가요' 등 숱한 히트곡을 냈다. 특히 2016년 발매한 '아모르 파티'가 세대를 아울러 크게 히트하면서 음악의 스펙트럼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KBS프리미어 김연자 더글로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마련된 특집 프로그램이다. 김연자가 주인공으로 나서 시청자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다. /연합뉴스



송중기·김태희·박태환·권유리 등 인기 배우·스포츠 스타 드라마 카메오 시청자들에게 볼거리·화제성 제공하지만 작품에 대한 몰입 떨어트려 역효과 지적

박태환, 소녀시대 권유리, 카라 한승연, 김태희, 송중기까지.

인기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잇달아 드라마에 본인 또는 과거 연기했던 유명 캐릭터로 특별출연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시청자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지만, 자칫 작품에 대한 몰입감을 떨어트리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14일 방송에 따르면 tvN 월화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는 지난 8일 첫 방송에 박태환과 소녀시대 권유리가 각자 본인 역할로 특별출연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권유리는 흰 제복 차림으로 방송국에서 매니저와 대화하다가 신인 밴드 멤버의 부탁을 받고 사인해주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박태환은 수영 유망주인 주인공 류선재(변우석 분)와 모의 시합에서 맞붙는 모습으로 나온다.

두 사람의 출연은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외에도 시간여행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의 시간 배경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설정상 권유리가 등장하는 장면은 2009년 7월로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가 한창 인기를 끌던 때였고, 박태환이 등장하는 장면은 2008년 6월로 베이징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수영 종목 금메달을 향한 기대감이 높아졌던 시기다.

'선재 업고 튀어'는 또 카라 멤버 한승연도 2009년 라디오 DJ로 등장시켜 2000년대라는 시대 배경을 강조했다.

올해 1월 종영한 JTBC 드라마 '웰컴투 삼달리' 역시 마지막 방송에 김태희가 본인의 이름으로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김태희는 여주인공인 사진작가 조삼달(신혜선)과 친분이 있는 유명 연예인이라는 설정이다. 드라마 초반부에 조삼달이 김태희와 친분이 있다고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촬영을 앞두고 모델이 나타나지 않아 삼달이 난처한 상황에 놓이자 김태희가 선풍 달려와 모델

이때 준다.

이 장면은 극중 사진작가인 조삼달이 유명 연예인인 김태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만큼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설정을 더 단단하게 한다. 이같이 유명인을 그 인물 자체로 등장시키는 특별출연이 있는가 하면 유머를 더하기 위해 다른 작품의 캐릭터를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송중기는 tvN 주말드라마 '눈물의 여왕'에 변호사 빈센조 까사노 역할로 출연했다. 빈센조 까사노는 송중기가 주연을 맡아 최고 14%대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 '빈센조' (2021)의 주인공으로, 똑같은 캐릭터를 그대로 가져왔다.

송중기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 주인공 백현우(김수현)의 변호사는 "저 사람 아주 무시무시하다. 재벌집 막내아들이다. 해외 파병 군인 출신이라더라, 늑대소년이라더라 여러 말이 있다"며 송중기의 출연 작품들을 암시하는 말로 웃음을 자아냈다.

유명 배우들이 특별출연에 나서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드라마 제작진과 과거 다른 작품에서 호흡을 맞췄던 인연이 있는 경우가 흔하다.

김태희는 '웰컴투 삼달리' 권혜주 작가가 집필한 드라마 '하이바이, 마마!'에 주연으로 출연했던 인연이 있다. 송중기가 주연을 맡은 '빈센조'와 특별출연한 '눈물의 여왕'은 모두 김희원 감독의 연출작이다. 특별출연을 통해 제작진은 재미와 화제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 시청자는 단 작품에선 주연급인 유명 배우들의 깜짝 연기를 보는 재미를 누린다.

다만 이런 특별출연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드라마의 맥락이나 개연성, 완결성을 저해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사례도 많다.

'눈물의 여왕'은 송중기가 출연한 8회 16%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자체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그의 등장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한 데 비해 같은 회사 후반부 퀸즈그룹 일가가 경영권을 잃는 과정은 비교적 짧게 다뤄졌다.

이달 2일 종영한 tvN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웨딩 임파서블'은 주연배우 전종서와 실제 연인 사이인 이충현 감독이 특별출연했는데, 일부 시청자는 이를 두고 몰입감을 떨어트린다고 지적했다. 남녀 주인공의 사랑을 다룬 드라마에 여배우와 실제 연인인 사람이 출연하면서 재미가 반감됐다는 취지다. /연합뉴스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